

윤5월 맞이 이색 법회 '눈길'

생전예수재·큰스님 초청법회·삼사순례 등 풍성

부산·경남 각 사찰에서는 4년 에 한번 찾아오는 윤오월을 맞아 생전예수재와 함께 삼사순례, 특별법회 등 이색 법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예수(豫修)란 '미리 닦는다'는 말로, 천도재가 죽은 이를 위해 재를 지내는 것인데 반해 생전예수재는 산 사람을 위한 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재를 지내 복을 짓고 허물을 면하고 왕생공덕을 닦는 의식이다.

해인사(주지 선각·055-934-3105)는 생전예수재 및 제4차 1029일 천도법회 입재식을 맞아 6월 22일 오전 9시 대적광전에서 묘해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

범어사(주지 정여·051-508-3122)는 5월 22일 생전예수재 입재 법회를 갖고, 28일 초재부터 막재인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예수재를 봉행하고 있다.

통도사(주지 정우·055-384-8380)는 5월 24일 오전 10시 예수재 입재, 7월 12일 오전 8시 회향법회를 갖는다. 기간 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천도재도 함께 봉행한다.

대광명사(주지 목종·051-742-7610)는 6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49일간 생전예수재를 올린다. 입재인 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합동천도재도 함께 봉행한다. 생전예수재 기간 중에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한다.

동명불원(주지 정산·051-626-4337)은 6월 5일 생전예수재 입재법회를 갖고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재를 올린다. 회향일인 6월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모산영산재보존회(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와 함께 생전예수재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백연화사(회주 원산, 051-

504-5522)는 5월 24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 입재법회를 갖고, 6월 1일 예수재 첫 재를 지냈다. 회향인 7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예수재를 봉행한다. 또 6월 26일 윤오월을 맞아 충남 수덕사, 간월암, 용봉사로 삼사순례를 떠난다.

홍법사(주지 심산·051-508-0345)는 윤오월 생전예수재와 백중을 맞아 '대웅보전 낙성 기념 큰스님 초청 법회'를 마련한다. '수행, 삶의 향기 찾기'를 주제로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오전 10시 불공에 이어 11시 법문, 12시 생전예수재 및 우란분절 영가천도 시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7월 1일 성우 스님(불교TV 회장), 8일 종범 스님(前 중앙승가대학 총장), 15일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22일 해남 스님(영축총림 전제사), 지광 스님(서울 능인선원장), 8월 5일 효산

스님(부산 효산선원장), 12일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19일 해국 스님(석봉사 금봉선원장), 26일 도영 스님(전주 송광사 주지), 9월 3일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 등이 법석에 오를 예정이다.

울산 해남사(주지 만초, 052-211-3340)는 생전예수재 및 영가천도 49재를 지낸다. 5월 28일 오전 10시 입재, 7월 16일 회향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마다 마련된다.

해운정사(조실 진제·051-746-2256)는 생전예수재 및 먼저 가신 고혼을 위한 49재를 봉행하며, 삼사순례를 떠난다. 생전예수재는 6월 23일(음력 윤달 5월1일) 오전 10시 입재해 8월 8일(음력 6월 18일) 오전 11시 회향한다. 삼사순례는 7월 16일 금전시를 거쳐 운문사 사리암으로 떠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홍법대상 김정두씨 선정

홍법사, 호국영령 넋 기리는 허공까지 홍법바라밀제도 봉행

호국보훈의 달 6월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전담마당에서 허공까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포교의 원력을 실천하고 호국영령을 천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제1부 허공까지 및 호국 영령 천도재에 이어, 제2부 홍법바라밀제는 불교TV 열불공양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주지 심산 스님의 연례 소개 및 인사말,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인사말, 홍법대상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특별법문 등의 순으로 1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주지 심산 스님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없지만 대웅보전



6월 6일 홍법사에서 허공까지 홍법바라밀제가 봉행됐다. 왼쪽부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살라"고 말했다.

올해 홍법대상은 11년간 실적자 및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보살행을 쌓아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홍법사 대웅보전 건립 대적불사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김정두 윤투건설 사장이 선정됐다.

홍법대상은 1989년 제정 이래 대상 수상자 30여 명에게 2억 원 이상의 상금을 전달하고, 장학생 160여 명에 장학금 4500만원, 청소년지도자 170명에 포교공로상금 8220만원, 청소년 단체인원금 1억3000만원 전달, 홍법총서 9종 3만4500권을 발간하고 법보시 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홍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차 한 잔·그림 한 장에 가르침 담아 '한 마음'

성타 스님의 외국인 문화포교 '인기'

"Welcome, Do you know temple of Korea's green tea?"

절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한 스님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다. 이들은 절 마당에서 사진만 찍을 뿐, 법당 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 스님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불교를 믿으세요'라며 다가간다면 거부감이 도망하겠지만, 차 한 잔으로 불교에 관해 전하고, 헤어질 땐 염주와 제가 그린 달마도나 '불(佛)'자 족자를 선물로 줍니다."

이게 바로 성타 스님(금강암)이 말하는 '차 한 잔의 포교' 그중에서도 스님이 직접 선물하는 족자와 그림이 가장 인기 있다. 사실 스님은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2009대

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작품명 '주시'로 우수상에 선정된 예술이다.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출가 후 한 때 절필했지만 포교현장에 뛰어들 후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인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는 불특정다수의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출 수 없음을 깨달았고, 가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스님은 포교의 한 방편으로 붓글씨와 그림을 그렸고, 불교라는 종교 속에 숨은 문화를 끌어내 대중에게 한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이번 초대작가 지정을 계기로 한 단



외국인에 대한 문화포교에 앞장서는 금강암 성타 스님.



성타 스님에게 참선과 절하는 법을 배우고 '불'자 선물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

계 업그레이드된 문화포교를 꿈꾼다.

"우리나라 스님이 외국에 나가서 포교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에 스스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저 관광에만 그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성타 스님의 붓 곳곳에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선물과 그림 선물. 그리고 '삼법인이란?' '쇠가 모니 부처님은 누구인가' 등에 관한 해답이 영어로 메모되어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머나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픈 성타 스님의 희망들이다.

박지원 기자

원순 스님의 '법화경' 강의 '인기 짙'

부산 청량사 불교대학 불학기 신도들 정진 열기 높아

"요즘 불경기 탓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대강백 원순 스님을 모신 <법화경> 강의로 불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뜨거운 신심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부산 청량사주지 운암 스님은 4월 초 2009학년도 불학기를 개강하고, 현재 50여명의 신도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그중 4월 23일부러 경전반 특강 '원순 스님의 <법화경>'을 시작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진행으로 수강생들의 배움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원순 스님의 강의는 어렵고 낮은 불교용어를 현대의 화법으로 해석해 속 시원하게 풀어내 호응이 높은 편이다. 강의 도중에 끊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

임없이 질의응답을 거쳐 그때그때 학습성취도를 파악해 수준의 높낮이를 조절한다. 또 단순히 강단에 올라 교재를 바탕으로 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주 숙제를 내 수강생들의 공부 정도와

마음가짐을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

마에프리아 불교대학은 불·가을 학기 각 3개월 과정으로 4월과 10월에 각각 개강하며, 학기 중에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초심자를 위한 3개월 입문자 반과 1년 과정의 경전반도 함께 개설되며 2009학년도 경전반은 '원순 스님의 <법화경>'을 개설해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마련된다.

한편,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일요가족법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12시부터 원순 스님의 <신심명> 특별강의가 마련된다. (051) 271-2774

박지원 기자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사! 금쇄옥약시의 귀신뱀은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은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厄運) 좌귀탈(左 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판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빙의)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환생)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법

심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 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매일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백초학교

(02) 3667-4446

010-3813-4443